

창립 40돌 ... 전국에 회원 2천4백50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59년 7월25일 창립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현재 2천4백50여명의 개인 회원과 2백여기관의 단체회원이 가입되어 왕성한 학술활동을 펴고 있다. 이 학회는 매년 4회의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4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학회지인 「국토계획」은 40여년동안 1백2호를 발간했다. 특히 올해에는 창립 40돌을 맞아 지난 7월23일 기념세미나를 열었고 「학회 40년사」도 발간했다.



金 英 模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大韓國土·都市計劃學會)는 국토개발과 경제개발에 이바지할 계획기술의 연구발전과 계획기술자의 지위 향상 및 상호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당시 건교부 장관이셨던 초대회장(현정)주원선생의 주도로 아래 8차 협의회를 거쳐 1959년 7월 25일 창립총회(제1회)를 통하여 설립하게 되었으며 1963년 3월 22일, 민법 32조에 의거하여 건설부로부터 사단법인 대한국토계획학회라는 명칭으로 설립허가를 받게 되었다. 그 후 1990년 8월 25일, 그동안 사용

해 오던 학회명칭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로 명칭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성 및 중요성의 증대와 학회의 회원구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매년 4회 학술발표회

학회에서 다루는 학문분야와 사업으로는 ① 국토, 지방, 도시, 산업입지계획 및 지역경제 제자원 개발에 관한 조사계획 연구 및 발표 ② 경제개발계획, 사회개발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연구 및 발표 ③ 전향에 관한 학술지(회지), 연구발표자료의 출판 및 연구발표회, 강습, 강연회, 전시회의 개최 ④ 계획기술에 관한 공로자 표창 및 장학사업 ⑤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등이다.

학회는 또한 학술활동의 진작을 위해 많은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바 매년 4회의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4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의 토론회와 심포지

엄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1993년부터 매년 대만·일본 도시계획학회와 함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어, 93년에는 대만 대북, 94년에는 일본 구주, 95년에는 한국 광주, 96년에는 대만 대중, 97년에는 일본 나고야, 98년에는 한국 강릉에서 개최하였고 올해는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대만 Tainan에서 제7차 국제심포지엄이 열릴 계획이다. 이러한 대외적인 활동 진작을 위해 국제교류위원회를 운영하여 한·대·일 국제심포지엄 등의 학술교류와 해외시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UNESCO, IFHP, EA-ROPH 등과 정보교환 및 협조를 하고 있어 지속적인 국외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문헌발간에도 노력을 기울여 학회지인 「국토계획」을 40년 동안 총 1백2호를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총 1천80여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그리고 자매지인 「도시정보지」를 2백9회 발간하였고 각종 학술발표회의 자료를 모아 총 2백여편의 논문집을 발간하였다. 이와 함께 후학양성을 위해 「도시계획론」을 비롯한 총 9권의 교재를 발간하였고 현재 연구중인 것을 포함하여 총 49건의 연구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금년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창립 40주년을 맞는 해이다. 지난 7월 23일에는 과학기술회관 회의실에서 창립 40주년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다. 현재 2천4백50여명의 개인회원과 각 시·도 정부기관, 전국 대학도서관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 2백여기관이 단체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과거 10개 미만이던 분과위원회는 1999년 6월 현재 학회지 편집위원회 및 도시정보지 편집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학술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하여 3개의 특별위원회와 24개의 연구위원회로 확대되었으며 총 8백20명의 위원들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경남/광주·전남/대전·충청/대구·경북/강원 등 5개의 지회를 가지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24개 연구위원회로 구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최근 각 위원회의 명칭이 통일되지 못한 채 사용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조직체계에 대하여 수정·보완하여 통일된 운영 조직체계를 새로이 확립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32개 분과위원회가 학회지 편집위원회, 도시정보지 편집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학술위원회, 교육위원회와 3개의 특별위원회(4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도시계획직추진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그리고 24개 연구위원회로 새로운 명칭과 함께 분리되었다. 그리고 총회(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회(57인), 감사(2인), 상임이사회(12인), 지회, 사무국 등의 운영조직체계를 확립하였다. 연구위원회의 명칭은 ① 21세기발전기획위원회, ② 21세기국토계획연구위원회, ③ 대도시연구위원회, ④ 지역개발연구위원회, ⑤ 도시입체공간연구위원회, ⑥ 신도시연구위원회, ⑦ 도시계획실무위원회, ⑧ 도시사회연구위원회, ⑨ 도시방재연구위원회, ⑩ 도시재개발연구위원회, ⑪ 토지연구위원회, ⑫ 주택연구위원회, ⑬ 경

관 및 관광연구위원회, ⑭ 환경연구위원회, ⑮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연구위원회, ⑯ 교통연구위원회, ⑰ 도시정보통신연구위원회, ⑱ SOC연구위원회, ⑲ GIS연구위원회, ⑳ 법제연구위원회, ㉑ 지방자치연구위원회, ㉒ 도시지리연구위원회, ㉓ 국토현장제정연구위원회, ㉔ 도시국제화분과위원회로 구분되었다.

본 학회의 시상제도로는 현정국토개발상, 학술상, 공로패 시상이 있는데 올해로 13회를 맞고 있는 현정국토개발상은 국토 및 도시계획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상금이 8백만원이나 된다. 학술상은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학문적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서 1998년 2월에 제16회 시상식이 있었다. 학술상의 상금은 3백만원이고 부상으로 5백만원 상당의 조각작품을 수여하고 있다. 공로패는 학회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에게 수여되고 이밖에 감사패 증정, 장학금 수여, 우수졸업자 시상 등의 제도를 갖고 있다.

국토 및 도시의 개발과 보전을 위한 학문적 기반구축과 교류를 위해 안으로는 학회의 체제와 제도를 정립함과 동시에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돈독히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는 국토 및 도시계획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인재양성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기초연구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였고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왔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창

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우리 사회와 격변의 시대를 함께 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지난 40년을 흔히 압축성장의 시대였다고 표현한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의 문턱으로까지 발돋움했다. 경제 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은 어떤 면에서 보나 눈부실 정도이다. 그러나 양에 치우친 나머지 질을 경시해온 것이 그간의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 삶의 질을 위협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세계는 지금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삶의 질과 환경이 자리잡고 있다. 자연착취적 산업화에 대한 깊은 반성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다. 새 천년은 숫자가 주는 상징적 마력도 크지만 이와 같이 자멸적 산업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간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새 천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더욱 깊다. 지난날의 압축산업화가 초래했던 폐해를 치유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점진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새로이 태어난다는 각오와 개혁적 정신이 여기에 필요하다. 우리 사회와 격변의 시대를 함께 해온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하나뿐인 우리의 국토, 영원한 우리의 국토를 지켜야 할 책무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게 있다는 점에서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 혁신과 새로운 시대 개척에 선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다. ㉕